
국민경제자문회의
제1차 물류··경제자유구역회의 안건(1)

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

2005. 6. 16

재 정 경 제 부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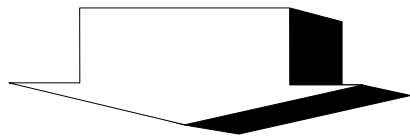
I.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과 비전	1
II.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	4
III.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	7
1. 투자유치 전략 수립	7
2. 투자애로사항 해소	8
3. One-stop 행정지원체계 개선	10
IV. 주요사업 추진계획	11
1. 송도국제도시 및 IT·BT 클러스터 조기 추진 ..	11
2. 청라지구를 Theme Park 등 관광·레저Hub로 조성 ..	12
3. 영종도를 항공물류도시로 건설	13
4. 부산신항 경쟁력 강화	13
5. 부산·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기계·자동차부품 클러스트화 ·	14
6. 광양항 활성화	14
7. 여수 화양 관광복합단지 개발	14
8. 해외 우수 학교·병원을 통한 교육·의료 Hub로 발전 ..	15

I.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과 비전

1.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배경

□ 경제자유구역은 우리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출범

대외적 여건	대내적 여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국·일본 사이의 Nut-cracker의 위기 - 세계의 자본·기술의 중국유입 가속화 * 작년 FDI : 한국 85.8억불, 중국 606.3억불 -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도 여전 * 작년 사상 최초로 대일무역적자 200억불 초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90년대 말부터 성장세 둔화 * 평균성장률이 70~80년대 8.1%, 90년대 6.5%에서 최근 3~4%대로 낮아짐 - 제조업 위주 성장한계, 고용창출미흡 - 서비스산업의 경쟁기반 취약



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활로를 모색할 필요

※ 홍콩, 싱가포르 외에 두바이, 인도 등도 특구를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 가속화

2. 경제자유구역의 의미

경제자유구역은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기본 전략

지리적 이점	세계적 공항 · 항만	우수한 인력 · 기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천공항에서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43개 ○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시장으로 확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천공항은 화물처리실적 세계3위 (서비스면에서도 세계3대 공항) ○ 부산 · 광양항은 세계 간선항로에 위치해 물류허브로서 입지 유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첨단기술부터 중간부품까지 다양한 산업구조 ○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○ 중국보다 숙련되고 일본보다 값싼 노동력

“선택과 집중”을 위해 일정부분(인천, 부산, 광양)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

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최고의 기업경영 · 생활환경 제공

Business Hub

물류 Hub

첨단산업 Hub

3. 경제자유구역의 비전

□ 대내적 비전

○ 우리 경제의 21세기 성장 원동력.

- 국내외 투자를 진작시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

* 경제자유구역의 효과(연구원 추정)

: 2020년까지 1,196조원의 생산유발, 23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기대

○ 국내기준의 국제적 조화로 경제선진화

-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글로벌 기준(Global Standard)이 국민적 검증을 받아 전국으로 확산

* 예 :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유급월차 및 유급생리휴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에서 우선 폐지된 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

□ 대외적 비전

○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 정립

- 세계와 더불어 사는 한국인·한국경제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 제고

○ 동북아 Networking의 중심지

- 사람·자본·기술이 모여드는 최적의 場을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상생의 터전 마련

II.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

1. 지난 2년간 추진실적

□ 지역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Master plan 확정

- 인천 : 국제업무, 첨단산업, 항공물류, 복합관광레저
- 부산·진해 : 항만물류, 기계-자동차 부품
- 광양만권 : 항만물류, 신소재, 해양레저

구 분	인 천 (‘03.8.6 지정)	부산·진해 (‘03.10.27 지정)	광양만권 (‘03.10.27 지정)
위치	송도, 영종 및 청라 총 3개 지구	부산 강서구 및 경남 진해시 총 5개 지구	여수·순천·광양시 및 경남 하동 총 5개 지구
면적	209km ² (6,336만평)	104.8km ² (3,171만평)	88.98km ² (2,691만평)
추정 사업비	14조 7,610억원	7조 6,371억원	13조 1,200억원
사업 기간	2020년 완료 (1단계 2008년)	2020년 완료 (1-1단계 2006년)	2020년 완료 (1-1단계 2006년)

□ 선진적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

-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, 외국 초중등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「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」 제정
-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의 용적률·건폐율을 일반지역의 1.5배로 확대, 골프장내 주택건설 허용

□ 구역청 기능을 개발·외자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화

- 구역청은 개발·외자유치 업무를 전담하고, 일반 민원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
- 구역청장에게 일반직 전보권, 외국인 등 전문직 임용권 부여

- 외국인 투자계약 체결(MOU 또는 본계약 205억불)에 이은 투자착수 등 외자유치 시동
 - 인천의 Gale(송도개발), AMEC(제2연륙교 건설), 부산의 Renault(자동차 엔진), 광양의 Hutchison(항만운영) 등과 MOU 또는 계약 체결
 - * Gale社의 경우 2억불 기투자, 송도 컨벤션센터 착공(05.3)
 - 인천공항, 부산,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에 물류기업 유치
- 금년 약 2조원을 투입하여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확충 (작년 13,275억원)

2. 향후 추진방향 : 금년부터 1~2년이 중요한 시점

-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본격화
 - (인천) 금년부터 송도 국제업무지구(167만평)가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에 진입하고, 청라지구(541만평)도 11월 착공되어 '08년까지 1단계 완공 예정
 - (부산·진해, 광양만권) '06년까지 항만, 배후부지에 대한 1단계 개발 완료
 - * 부산신항 컨부두 6선석 배후부지 22만평, 광양항 컨부두 16선석 배후부지 20만평
- 전략적 외자유치 가속화
 - IT, BT, R&D, 물류, 레저 등 유치업종을 다변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활성화해 주요 외자유치 사업별 점검체계 구축
 -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맞춤형 제도개선 추진

<참고> 투자유치 현황

투자자		업종	투자금액	주요내용
인천	Gale社 (미국)	개발사업시행자	US\$ 127억불	- 02.2 투자계약체결 - 송도 167만평 국제업무지구 조성 - 컨벤션센터 착공(05.3)
	VaxGen社 (미국)	Bio Technology	US\$ 1.5억불	- 02.2 투자계약체결 - 송도 28만평 규모, 신약생산
	AMEC社 (영국)	Engineering, 개발사업시행자	제2연륙교 12억불 인천공항 IBC-II 20억불	- 제2연육교 건설 (09 완공) - 인천공항 북측 국제업무지구 (IBC-II) 개발(04.4 MOU)
	Pyne社 (미국)	항만시설 등	US\$ 15억불	- 송도신항 건설 (04.4 MOU) - 1단계 2008년 완공
	DHL(미국) TNI(네덜란드)	특송업체	DHL 2,000만불 TNT 700만 유로	- 인천공항내 화물터미널 건설 (DHL 6,800평, TNT 2,100평)
	GM-대우	자동차	0.56억불	- 청라지구 성능시험 및 R&D
부산 진해	Dubai port Int'l (UAE)	항만시설	US\$ 3.1억불	- 부산신항 1단계 개발 투자
	Snow-Box (영국)	관광·레저단지	US\$ 2억불	- 04.12 MOU 체결
	르노-삼성 (프랑스)	자동차	US\$ 6억불	- 부산 신호산단내 엔진공장 증설 투자
	NKCF (미국)	제조	US\$ 4천만불	- 05.5 투자계약 체결
광양	허치슨社 (홍콩)	항만시설	US\$ 1억불	- 광양항 항만운영 투자 중
	Drager社 (독일)	의료기 생산	미정	- 의료기 제조 R&D센터 건립 (04.6 MOU)
	(주)일상 (홍콩)	관광·레저단지	US\$ 15억불	- 화양지구 레저단지 조성
	포스코터미널 (일본 합작)	항만시설 등	US\$ 3천만불	- 광양항 항만운영 투자
	한주체터미널 (홍콩 합작)	항만시설 등	US\$ 2천만불	- 광양항 항만운영 투자

Ⅲ.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

1. 투자유치전략 수립

□ Business Model 개발

- 선도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치모델 개발
 - 예 : BT기업 + 외국병원 → BT 클러스터
 - 물류기업 + 물류대학 → 물류 클러스터
 - 테마파크 + 호텔 + 골프장 + 리조트 → 레저클러스터

□ 국내외기업 공동참여 확대

- 국내 우수기업과 해외기업이 호텔, 쇼핑몰, 상업시설, Theme Park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 추진
 - 외국기업과 공동 참여하는 국내기업에 우선적 부지제공 및 저가 임대료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
 - * 외투기업은 국내기업과 합작 또는 기술·경영제휴를 통한 공동 참여를 희망하나, 국내기업참여가 부족

□ IT, BT, R&D 센터, 유통, 호텔, 레저 등 유치 Target 다양화

- KOTRA 및 과기·산자·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체계 강화
-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활성화해 이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PM (Project Manager)별 점검체계 구축

2. 투자 애로사항 해소

□ 경제자유구역내 대기업 공장 설립

- 외국인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첨단 대기업공장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을 종합 고려해 개별적 사안별로 허용 검토

* 현재는 수도권내 외투기업만 공장설립이 가능할 뿐 국내대기업은 공장설립이 제한(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)

□ 농지조성비 감면 신설

-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감면함으로써 토지 조성원가 절감(농지법시행령 개정)

* 현재는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 부가됨(예 :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900억원 상당)

□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증과 해소

-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을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균형발전 시책과 연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 검토 (수도권정비법시행령 개정)

* 현재 송도 1~6공구와 영종지구는 성장관리권역으로, 청라지구와 송도 7~12공구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차별화되어 있음

*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한 기업에는 취득등록세가 3배 증과됨(지방세법)

□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분양 기회 확대

- 외투기업 내국인 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(주택공급규칙(건교부령) 개정)

* 현재는 외투기업 종사 외국인만 주택 특별공급 허용

□ 가용부지 조기확보

- 부산, 광양 경제자유구역의 가용부지 부족문제 해소
 - 부산 명동지구(27만평) 추가개발, 화전지구(73만평) 금년 조기착공
 - 광양 울촌1산단 10만평 자유무역지역 지정하여 국가가 개발(내년 상반기)
 - 부산신항 배후부지 22만평을 '06년까지 조성하고 추가 21만평도 '08년 완공

□ 부산신항에 컨테이너세 적용을 배제

- 부산신항 경쟁력·확보를 위해 부산시에서 부과하는 컨테이너세 적용 배제 추진 (하반기 조례 개정)
 - 약 300억원의 물류비절감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
- 기존 부산항은 '06년말 이후부터 폐지

* 컨테이너 1TEU당 20,000원 징수

3. One-stop 행정지원체계 개선

□ 구역청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*화 검토

- 고유 사무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One-stop 행정서비스 최적모형 도출(현재 한국 행정학회에서 용역 진행 중)

* 특정의 기능 및 시설을 효율적·광역적으로 제공·운영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과 별도로 설치되는 특수 형태 지방자치단체

** 현재는 구역청의 조직·인사·재정이 시·도에 과다 의존되어 있어 조직의 자율적 의사결정능력 미약

□ 투자유치 전문가 확보

- 보수체계 강화 등 인센티브 강화

* 현재는 보수·채용요건이 까다로워 투자유치전문가 채용이 어려움

- 산자부, KOTRA 등 관계기관과 인적교류 및 인적 Network 구축(Work-Shop, KOTRA 투자유치교육 참가)

- 주요 행사(10월 세계華商대회, 11월 APEC정상회의 등) 공동IR을 위해 구역청, Invest Korea 등 Project-Team 공동구성

□ PM(Project Manager)제도 활성화

- 투자대상 사업별 PM(Project Manager)을 지정, 모든 투자절차를 일괄 지원하는 One-man서비스 구현

* One-stop 서비스를 위하여 지자체사무 중 구역청은 개발·외자유치업무를 전담하고 일반 민원업무는 지자체에 이관하였으나('04.12. 경제자유구역법 개정), 항만·공항·자유무역지역 관리 등 국가사무는 국가소속 지방기관 관할로 인허가권이 이원화되어 있어 인허가권 소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One-stop 서비스 필요

IV. 주요사업 추진계획

1. 송도국제도시 및 IT·BT 클러스터 조기 추진

□ 사업 개요

- 국제업무지구는 총 167만평 부지에 2015년까지 127억불을 투자해 오피스빌딩(60여동), 상업·주거시설, 학교·병원 등 조성(Gale社와 POSCO건설 합작)
- 지식정보단지(80만평), 바이오단지(10.6만평)를 중심으로 우수 IT·BT 기업 유치에 통한 첨단 클러스터化

□ 국제업무지구 조성

- 금년 주요 추진사업(착공 기준)
 - 토지매입비 포함 총 16.7억불 규모
 - 컨벤션센터(3.4만평, 기부채납 예정) : 총 1.25억불 규모(05.3.7 착공)
 - 주상복합(3.2만평, 1,600세대) : 총 8.8억불 규모(05.5 분양)
 - 상업시설(2.8만평) : 총 5억불 규모(05.11 착공)
 - 부지매입(44만평) : 1.6억불(05.7)
- '06년 주요 투자계획 : 오피스, 주거·상업지역, 병원, 중앙공원 등 총 69만평 부지에 57.2억불 규모 사업 착공
 - 이 중 다음 project는 금년 중 앞당겨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(11억불 규모)
 - Asian trade tower (1.7만평) : 5억불
 - 학교 1.2억불(1.4만평)
 - 중앙공원 : 12만평, 2억불

□ IT·BT 클러스터 조성

- 지식정보단지(80만평), 바이오단지(10.7만평)는 금년 말까지 조성 완료
 - * 지식정보단지는 80%, 바이오단지는 57% 기 분양 완료
- 2.5만평 부지에 내년부터 5년간 3,994억 원을 투자, 세계적인 RFID(전파식별,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)* 클러스터 조성
 - * 각종 물품에 소형칩을 부착해 사물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·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유비쿼터스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
- BT기업·외국병원 동반유치를 통해 연구+ 임상실험 + 병원 + 교육의 Bio 클러스터 조성
 - 인천 경제자유구역 1호 기업인 (주)셀트리온 공장이 완공, 금년부터 바이오신약 생산(1.5억불 투자)

2. 청라지구를 Theme Park 등 관광·레저 hub로 조성

- (사업개요) 총 541만평 부지에 '08년까지 3.7조원 투자, 레저시설, 골프장, 업무·주거단지 등 조성(1단계 '08년 완공)
- 수도권 관광명소가 될 세계적인 Theme Park(종합영상·오락 놀이시설) 유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흡수
 - 금년 9월부터 국내외 투자가 모집 등 유치전략 본격화
 - * 현재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가 feasibility study 진행 중
- 화교자본을 유치하여 Asian Village 건설
 - *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華商대회를 적극 활용(2,500여명의 화교 참가 예정)

3. 영종도를 항공물류도시로 건설

- (사업개요)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영종도 일원을 물류·무역·레저가 복합된 세계적 공항도시 건설(1단계 '08년 완공)
- 공항 배후 자유무역지역 60만평(1단계 30만평, 2단계 30만평)에 우수 항공물류기업 유치
 - 화물터미널지역(33만평)에 4대 특송업체(DHL, TNT, UPS, FedEx)를 비롯한 외국항공사 유치
- 영종도 서북측 130만평에는 英 AMEC社와 유럽풍 국제휴양도시 건설 추진

4. 부산신항 경쟁력 강화

- 조기활성화를 위해 추진상황 점검(경제정책조정회의, '05.4.29)
 - 배후도로(초정IC~가락IC) 및 배후철도(낙동강~녹산) '08년 완공
 - 물류부지 31만평을 '08년까지 공급
- 노무공급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부산신항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 개선
 - 크레인 집중투입(5~7기) Twin lift 크레인 도입으로, 선박체류시간을 기존 17시간 → 12~14시간으로 단축
 - 터미널 운영사에게 하역 및 각종 부대사업 면허를 일괄 부여, 서비스 개선(EUCCK에서 지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)
 - 한시적으로 입·출항료 면제 등 지원

5. 부산·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기계·자동차부품 클러스터화

- 르노-삼성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형성
(금년부터 3년간 6억불 투자 예정)
- 부산과학산단내 외국인투자지역(9.2만평)에 기계·자동차
부품 분야 외국기업 유치
 - * 국내용 산업단지(18.7만평)는 R&D, 부품·소재업 중심으로 분양률 73%

6. 광양항 활성화

- 호남·충청권 등 국토 서부축 물량을 집중 유치
 - 선사·화주에게 물량·선박스케줄 matching
- 광양항 이용 운송주선자(forwarder)에게 인센티브 부여, 화주
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물량창출 기반조성
 - 배후물류단지(10만평)에 일본, 싱가포르 등 물류기업 유치
- BTL, 자산유동화채권(ABS) 발행 등 재원조달을 다각화
 - 전라선 복선화, 광양~전주간 도로를 2010년까지 전구간 완공

7. 여수 화양 관광복합단지 개발

- (사업개요) 사업시행자 (주) 일상이 2015년까지 1.5조원을
투자해 299만평의 관광·레저단지 개발, 금년말 착공
- 2012년 여수박람회유치와 연계하여 교통, 숙박시설 확충
 - '07년 말까지 특급호텔 2개 건립
 - 박람회 장소와 화양단지 연결도로(국지도 22호선) 건설 지원

8. 해외 우수 학교·병원 유치를 통한 교육·의료 hub로 발전

- 「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」 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국제 학교 유치를 본격화
 - 인천 송도에 美 동부 사립학교 수준 초·중·고 국제학교 착공(Harvard Advisory Group 용역, 학생 2,100명, 1.2억불 투자)
 - 부산·진해, 광양만권도 초·중·고 각 1개교 설립 목표
 - 대학(원)은 Cluster 형성, 교육 Hub 발전가능성 등 감안하여 IT, BT, 물류 등 특성화 위주로 유치
 - * 예) 광양만권 세계 우수 STC-R 물류대학(네덜란드) 유치 추진

□ 해외 우수병원 유치

- 금년 중 Project Company를 설립하여 '08년까지 개원 (600병상 규모)
- 병원설립기준, 외국 의사 면허기준 제정 등 외국병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

<해외 우수 학교·병원 유치 전략>

